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1호 [투게 제2667호]

주체 110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음력 9월 4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어 자주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자

온 겨레가 증첩되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거족적인 자주통일운동을 과감히 벌여나가고있는 시기에 공화국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의연 불안하고 엄중한 경제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시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하시었다.

겨레의 통일지향과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시려는 철석의 신념과 확고한 자주통일외교가 맥박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시정연설은 자주통일운동에 온 겨레를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된다.

현시기 모두의 우려를 자아내는 북남관계악화가 계속 지속되는 원인을 옳바로 찾는것은 북남관계의 밝은 앞길을 열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고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있다. 무슨 일에서나 원인을 옳바로 찾아야 해결책은 바로세워나갈수 있다.

현 북남관계악화의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남조선에서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충격행동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공화국을 자극하고 때때로 위협하는 불순한 언동들이 계속 행하여지고있으며 남조선당국이 미국에 추종하여 외부의 지

지아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있는데 있다.

동족을 겨는 군사연습과 무력충격행동이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된다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이다. 또한 북남선언들에서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합의를 어느 한 조항도 뚜렷히 이행하지 않고 지어 반통일세력들속에서 북남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망발들이 거침없이 튀어나오고있는것도 북남관계가 신뢰의 기초우에서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가는 데 엄중한 장애로 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에 엄중한 해악을 끼치는 이러한 흐름을 의면한채 계속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있으며 북남관계가 제대로 풀려나갈수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남조선당국이 제안한 종전선언문제에 대해서도 명백한 대답을 주시었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없는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 하는것이 공화국이 밝히고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이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이라는것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정연설

에서 북남관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뚜렷이 천명하시었다.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충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한다는것, 북남관계를 바로 해결하자면 따로써야 아니라 실현으로 민족주의의 립장을 견지해야 한다는것,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북남관계를 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것, 바로 이것이 시정연설에서 밝혀주시 북남관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다.

북남관계악화의 원인과 그 해결방도가 명확히 밝혀졌으므로 북남관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앞길이 열리고 온 겨레가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의지를 안고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갈수 있게 되었다.

하기에 지금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북과 남은 물론 해외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천리해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또다시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겨레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이 새차게 끓어오르고있다.

지금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어 자주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불같은 열의를 넘쳐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천명하신 대남정책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밝히는 해불이고

현시기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목격지향성있게 이끌어가는 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가이든, 어디서 살든 시정연설에 반영된 조국통일정책의 진수를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실천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악화의 원인들이 무엇인지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고 지금 북남관계는 현 행방향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의지를 안고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갈수 있게 되었다.

하기에 지금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북과 남은 물론 해외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천리해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또다시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겨레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심이 새차게 끓어오르고있다.

지금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어 자주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불같은 열의를 넘쳐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천명하신 대남정책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밝히는 해불이고

자주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절세위인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경색되어있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풍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하시었다.

이것은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이 땅의 통일을 안아오는 주인은 다름아닌 8천만 우리 겨레이며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오느냐 하는것은 결국 겨레의 통일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이라면 그 누구이든 조국통일을 위한 의로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대결을 계속 부추겨대는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을 단호히 매장하여야 하며 통일투쟁의 함성이 삼천리방방곡곡과 조선사람이 사는 해외도처에서 계속 힘차게 울려나오게 해야 한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자주적공기와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어야만겠다.

원수님을 모시였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또다시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문제들을 제시하시었는데 정말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인민밖에 없으십니다.

제가 조국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느끼는것은 원수님의 연설들에서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떠나적이지 않고 비상방역사업과 육아정책,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모든 국가건설과 활동이 인민을 위해 지향되고있다는것입니다. 정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였기에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세계적 악성전염병사태,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도 조국인민들이 지금과 같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중동포 심철영

민족적공지가 가슴에 넘쳐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과 발전은 국가방위력의 끊임없는 강화를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었습니다. 너무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조국이 지금의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최근 한달어간에만도 벌써 수차례나 새로운 신형무기들에 대한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는데 다른 나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위력한 최신헌기도 척척 만들어내는 조국의 최첨단을 달리는 국방과학기술과 국방공업의 발전수준에 감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우러르는 위대한 령장을 모신 민족적공지가 가슴에 넘쳐납니다.

재중동포 최철국

우리 조국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현시기 가장 중요하고 사활적인 혁명사업은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조국에서 지금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생활안정을 제일로 우선시하며 새로운 육아정책을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을 계속 실시하고있는것을 보면서 우리 조국이 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중동포 리수길

재중동포들의 시정연설에 접한 력사적인 시정연설에 접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풍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단절되어있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데 대한 의사를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을 받들어 해당 기관들에서는 10월 4일 9시부터 모든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북남통신연락선의 재가동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것이다.

주체110(2021)년 10월 4일 평양

개천절 기념행사 진행

개천절기념행사가 3일 단군릉앞에서 진행되었다.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들, 단군진흥동맹협의회, 관내부서 일군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먼저 단군제가 있었다.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우리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세계민방에 떨쳐주시기 위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기 위하여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존엄과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이 땅우에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지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탁월한 위인을 어버이로 모신 민족적공기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며 부강조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천만민족의 일원단심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위대하고 존엄높은 국가로, 부강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온 세상에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1 개막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1이 1일에 개막되었다.

《자력갱생과 정보화열풍》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람회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에 이룩한 정보화, 정보산업 및 정보기술성과와 제품들을 널리 소개전전하고 교류, 보급함으로써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

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가망을 통하여 가상전람회방식으로 열린 전람회는 성, 중앙기관, 각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과학연구기관, 교육 및 보건기관 등 수백개 단위들에서 내놓은 1 20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들과 정보기술제품들이 출품되었다.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 사이트의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1》에 시상상품소개, 3차원전시장, 2차원전시장, 인공지능프로그래밍연, 발표회, 군중평가 및 교류마당, 감상글메시지들을 설정하고 3차원전시장과 2차원전시장에 대상들의 특성에 따라 정보화성과전지구역, 정

보안성과전지구역, 부문별 전시구역, 지역별전시구역으로 나누어 전시하였다.

이번 정보화성과전람회는 누구나 국가망에 가입하여 전람회에 출품된 성과자료들과 제품들을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열람할수 있다.

전람회는 29일까지 진행된다.

백두산샘물공장 준공식 진행



랑강도 삼지연시의 리명수 지구에 백두산샘물공장이 일떠서 완공되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선형되고 설비들이 그르히 갖추어진 샘물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되었다.

백두산천지를 시원으로 하고있는 샘물은 인체활성화에 필요한 여러가지 광물질이 충분히 들어있어 시원하고 상쾌한감을 주는 천연샘물이다.

백두산샘물공장 준공식이 3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제25차 총회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 제25차 총회가 9월 25일 도쿄에서 진행되었다.

박우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조일연 부의장, 리성철 경제국장, 백규영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회장을 비롯한 청상회 성원들과 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앞으로 청상회가 주역이 되어 애국애족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한 제25기 사업방향과 과업들이 토의결정되었다.

배창렬 재일본조선청년상공

도쿄에서 진행

회 중앙상임간사회 간사장이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그는 청상회가 역원들의 정신력을 크게 발휘하도록 하여 조직의 역할을 한층 높이고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히 다진것을 비롯하여 제24기 사업기간에 거둔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앞으로 청상회가 모든 기층조직을 보다 약동하는 조직으로 강화하여 동포사회의 전반적분위기를 크게 전환해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청상회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억척같은 신념과 어려움을 때릴수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불같은 사명감을 지니고 조직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조직건설과 활동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총회에서는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회장으로 최병호가, 중앙상임간사회 간사장으로 송명남이 새로 선출되었다.

본사기자